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주관 : 김태흠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한국농어민신문



[토론회 자료집]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일 시 : 2016년 10월 12일 (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주관 : 김태흠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 한국농어민신문

## 인 사 말



중앙회장 김 진 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쌀은 반만년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지탱해 온 핵심 주식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고 175만톤, 농협 재고 20만 9천톤이 넘는 지금처럼, 쌀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산지 쌀값은 작년과 비교하여 20%, 꼭 20년 전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시름 또한 바닥을 모르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10월 5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분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미 한농연은 올 여름부터 수확기 심각한 쌀 대란을 예견하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은 쌀값 폭락이 심각한 뒤에야 발표돼 아쉬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신곡 수요량 초과분 발생시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등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지 쌀값 폭락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분 공공비축미 잠정매입 가격이 40kg 벼 포대 기준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8월말 쌀값의 93% 수준까지 지급한다고 하나, 정부가 책정한 낮은 잠정매입 가격으로 인해 산지 쌀값 하락이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적어도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농협 및 민간도정업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는 유인이 생깁니다. 공공비축미 잠정매입가격 인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대책에 생산조정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생산조정제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실시함으로써 쌀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용 작물의 생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정제 실시를 통해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생산조정제 예산을 확보·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오늘 긴급 토론회를 통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쌀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우리 쌀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여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바쁜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견을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10.11.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계획

### 1. 제안 배경

- 통계청이 발표한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정곡 기준 13만 3,436원 (20kg 포대당 33,35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날(15만 9,196원) 대비 16.2%, 작년 수확기 평균 가격(15만 2,158원)보다 12.3%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금년 단경기(7~9월) 역대절진폭은 역대 최고치인 8.1%에 이르고 있다.
- 산지 쌀값의 하락 요인은 재고 누적 및 소비 감소, 생산 과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올해 벼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2만ha가 감소하였으나('15 : 79만 9천 ha → '16 : 77만 9천 ha), 기상 여건이 좋아 벼 생육이 양호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보유 재고는 8월말 기준 175만톤(국산 133만톤, 수입산 42만톤)으로 작년 동기(137만톤)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이다. 농협 보유 재고 또한 8월말 기준 20만 9천톤으로 재고 부담이 큰 상태다.
  - 특히 농협·민간 RPC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작년산 구곡 처분을 서두르는데다, 추석 전후로 생산된 조생종 쌀과 9월말 본격 수확될 일반미가 홍수 출하되면서 쌀값 폭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속에서 농협 RPC들의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수확기 추가 매입 여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 RPC들의 올해 6월말 가결산 결과 111개소에 적자가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총 적자가 27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년 누적 적자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6일 2016년산 쌀 중 수요량 초과분 전량에 대한 시

장격리 방침을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용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동요와 시장 혼란을 막고 국내 쌀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높다.

- 이에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과 (주)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제목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주관 :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한국농어민신문
  - 참가 인원 : 한농연 회원, 농업인 및 관계자
- 주제발표 1 :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현장 농업인의 수확기 쌀 수급·가격 안정 대책 요구사항
- 주제발표 2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가격 안정 대책

◦ 패널(좌장, 지정토론자) 구성

- 좌장 : 김호(단국대학교 교수)
- 학계 : 김명환(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 조합장 : 문병완 농협RPC조합장협의회 회장(보성농협 조합장)
- 언론계 : 정문기 (주)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 농업계 :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정당1 : 임정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 정당2 :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정당3 : 이인구 국민의당 전문위원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주제 발표문**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한 민 수 정책조정실장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

# 1. 최근 쌀값 및 수급 동향

- ▶ 통계청이 발표한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정곡 기준 13만 3,436원(20kg 포대당 33,359원)에 불과함
  - ▶ 이는 작년 같은 날(15만 9,196원) 대비 16.2%, 작년 수확기 평균 가격(15만 2,158원)보다 12.3% 낮은 수치이며, 금년 단경기(7~9월) 역계절진폭은 역대 최고치인 8.1%에 이르고 있음(2014년과 2015년 역계절진폭은 4.5% 수준이었음)
- ▶ 산지의 벼 매입가격 하락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 본 연합회가 각 도의 농협별 9월말 기준 벼 매입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작년 대비 최저 5천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남부 지역의 경우 40kg 벼 포대당 3만 5천원선까지 하락한 상황임
  - ▶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한 농협 RPC들이 사후정산제 시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나, 현장 농업인들은 이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사후정산제 적용으로 인해 하락한 벼값이 인상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효과가 우려되는데다, 민간 도정업자들이 벼값 추가 하락을 예상하여 벼 매입을 계속 미루는 등의 부작용마저 예상되기 때문임

# 1. 최근 쌀값 및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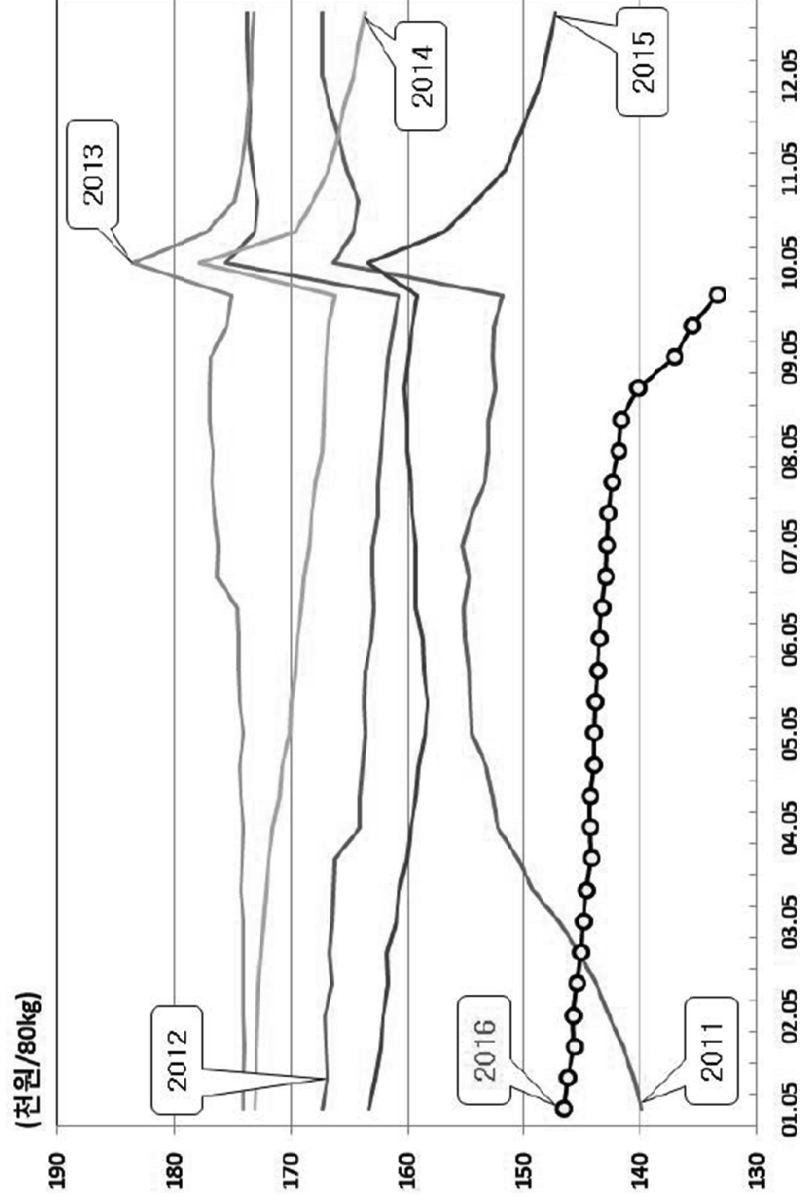
표 1. 산지 정곡가격 (2016.06.15~2016.09.25)

일 자	06.25	07.05	07.15	07.25	08.05	08.15	08.25	09.05	09.15	09.25
쌀 가격 (원/80kg)	143,040	142,900	142,856	142,524	141,896	141,684	140,288	137,152	135,544	133,436
전기 대비 등락률(%)	-0.20	-0.10	-0.03	-0.23	-0.44	-0.15	-0.99	-2.24	-1.17	-1.56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10.17	-10.30	-10.48	-10.80	-11.33	-11.49	-12.45	-14.26	-15.10	-16.18
전년 수확기 대비 등락률(%)	-5.99	-6.08	-6.11	-6.33	-6.74	-6.88	-7.80	-9.86	-10.92	-12.30

자료: 통계청

# 1. 최근 쌀값 및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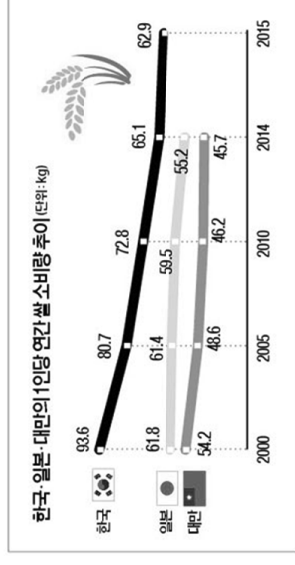
그림 1. 산지 정곡가격 동향 (2011~2016)



자료: 통계청

## 2. 최근 쌀값 폭락의 원인

- ▶ 산지 쌀값의 하락 요인은 재고 누적 및 소비 감소, 생산 과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 통계청은 “2016년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10월 7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0만 2천톤으로 작년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재배면적은 778,734ha로 작년 대비 2.6% 줄었으며, 10a 당 생산량(현백률 92.9% 적용시)은 540kg로 0.4% 감소하였음
- ▶ 그러나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육류 및 밀가루음식 등의 소비 증가), 2015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2.9kg까지 감소하였음
- ▶ 여기에 정부 보유 재고는 8월만 기준 175만톤 (국산 133만톤, 수입산 42만톤)으로 작년 동기(137만톤)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임. 농협 보유 재고 또한 8월말 기준 20만 9천톤으로 재고 부담이 큰 상태임
- ▶ 특히 농협·민간 RPC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작년산 구곡 처분을 서두르는데다, 추석 전후로 생산된 조생종 쌀과 9월말 쌀과 수확될 일반미가 홍수 출하되면서 쌀값 폭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임



### 3. 정부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 주요 내용

- ▶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
  - ▶ 통계청 예상수확량 발표 시점(10월)에 잠정 격리물량 산정,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최종 물량 확정
- ▶ RPC 버 매입자금 지원 확대(정부 1.4조원, 농협 1.6조원)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버 매입 유도
  - ▶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를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
- ▶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 매입을 연내 추진
  - ▶ 우선지급금은 45천원/벼40kg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산정
- ▶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에 수입 밥쌀 방출량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
- ▶ 사료용쌀 추가공급, 해외원조(1천톤 내외)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 추진
- ▶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 4.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 ▶ 시장격리 방침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기에 발표되었으나, 쌀값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 신속히 방침을 확정짓고 수확기(10월초)부터 본격 매입에 들어가지 못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 한농연은 올 여름부터 시장격리 조기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9.15 작황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음
  - ▶ 8월 초순 이후 농협 및 민간 RPC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2015년산 구곡 처분을 서둘렀으며, 봄철부터 추석 대목에 대응해 조생종 쌀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쌀값 폭락이 초래됐음
  - ▶ 이 때문에 정부가 변동직불금 예산(9,777억원+α)은 물론,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6천억원 내외로 예상)을 추가 편성 집행하면서도, 쌀 생산농가는 물론 농협 RPC의 경영난 해소 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임
- ▶ 올해분 수요량 초과분의 시장격리를 올해 내에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은 긍정적이나,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격리 물량을 확정하는 뒤 본격 매입한다면 쌀값 및 수급 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 4.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 ▶ 현 시점에서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만 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전환 이행계획서에는 2004년 관세화 유예 재협상시 명시된 용도별 제한 규정(밥쌀용쌀 12만톤 구입 의무) 및 국별 쿼터 배정(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에 쿼터 물량 배정) 관련 조항이 삭제돼 제출되었음
  - ▶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요구한 관세화 검증 협상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통상협상(RCEP, TPP,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비하여 513%의 쌀 관세율 및 이행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밥쌀용 및 가공용쌀의 TRQ 물량 수입(매년 40만 9천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그럼에도 밥쌀용 수입쌀의 도입 방출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거부 심리가 큰 상황이며, 정부의 수입쌀 방출(공매)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 또한 높은 상태임 (TRQ 방식으로 수입되는 쌀에 부과되는 관세는 5%에 불과)
  - ▶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감축 또는 중단”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이나, 농업인 및 농협, 민간도정업체 등에게 보다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함

## 4.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 ▶ 오래된 쌀(古米)의 사료화 등 특별처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 ▶ 정부는 올해 10만 1천톤의 오래된 쌀(古米)을 사료화하고, 내년에는 이를 25만톤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임
  - ▶ 쌀 사료화는 물론 주정용, 가공용 등의 특별처분을 통해 정부의 과잉 쌀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향후 흉년시 활용할 수 있게끔 적정 수준의 재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해야 함
  - ▶ 7월말까지 방출된 사료용 쌀 6만여톤 중 절반인 3만톤은 가루로 뺀지 않고 현미 형태로 방출되었음. 식용쌀 등으로 부정 둔갑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루 형태로 뺐아서 공급해야 하며, 사료용 쌀가루가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농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함
- ▶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의 실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 쌀 재고를 해외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의 가입 절차를 서둘러야 함
  - ▶ 일본은 연간 20만톤의 해외 쌀 무상원조를 실시하여 시장격리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돼 있지 않아 대규모 식량원조가 불가능한 상태임

## 4.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 ▶ 2015년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도입 실시되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의 미봉책 수준인 정부 쌀 정책은 1~2년 내에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임
  - ▶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제출했던 생산조정제 예산(총 900억원. 3만 ha에 적용. ha 당 300만원 지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번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 과잉 생산 및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수요량 초과분에 대한 시장격리와 함께 변동직불금 예산을 확대하는 현행 방식만으로는,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든데다, 농업인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에,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 생산조정제와 유사한 사례였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벼 대신 논에 재배한 콩, 배추, 대파 등의 생산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은 물론, 2011년 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2011~13년간 시범실시한 후 중단되었음(농식품부 및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 참조)

## 4.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 ▶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생산조정제를 도입 실시해야 함
  - ▶ 2011년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료용 작물 및 조사료용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경종-축산간 순환형 농업 체제 확립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생산조정제를 도입 실시해야 함
  - ▶ 특히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쌀 농가와 축산(한우, 낙농, 육우 등) 농가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는 물론 농축협, 공공기관, 농업인(축산)단체간 긴밀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 생산조정제는 단기적 대책(2~3년)으로 그치지 말고, 10~15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벼 위주의 작부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해야 함
- ▶ 생산조정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임
  - ▶ 신곡 수요량보다 35만톤 과잉생산됐을 경우, 변동직불금(1조원 내외), 시장격리(6천억원 내외)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 반면 생산조정제 실시시(쌀 35만톤은 7만 ha에서 생산됨.ha 당 단수 5t으로 가정), 2,100억원의 예산만으로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임

## 5. 한농연의 쌀 정책 개선 요구사항

- ▶ 시장격리용 벼 매입 조치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최종 결과 발표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실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함
- ▶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완전 중단하고, TRQ 수입쌀(밥쌀용, 가공용)의 부정 불벌 유통을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함
- ▶ 고미의 사료화를 적극 실시하되, 현미 형태가 아닌 쌀가루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부정 불벌 유통 가능성을 낮춰야 함
- ▶ 사료용 작물 및 조사료용 작물 재배 장려를 위한 생산조정제를 전면 도입 실시하고, 필요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야 함
- ▶ 9월초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함.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 연계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량미로의 전환을 막도록 해야 함
- ▶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에 조속히 가입하여 과잉 재고쌀의 해외 원조가 가능토록 해야 함

# 감사합니다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주제 발표문**

쌀 수급 안정 대책

김 종 훈 식량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

# 쌀 수급안정 대책(안)

---

2016. 10.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 1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금년 수확기 쌀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년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 실시

-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10월)에 잠정 격리물량 산정,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격리물량 최종 확정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
-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

\* 다만, 군·관수용(5.7만톤), 복지용·학교급식(11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

②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DSC(Drying & Storage Center, 건조·저장시설)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3조원(정부 1.4, 농협 1.6)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RPC 등의 추가매입 유도
-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

\* 수매기간 중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입 가격을 확정,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③ 공공비축미(36만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3만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선지급금 45천원/벼40kg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산정
- 매입대상 품종을 고품질 위주로 개선하고,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에 재배면적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존)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85%, 진흥지역 논면적 10, 품종제한실적 5  
→ (개선)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

- 농가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 매입 1만톤 증량('15: 8만톤→'16: 9)

\*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

④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국내산-수입 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

- 쌀값동향을 고려, 수입 밥쌀의 방출 물량·횟수 조절
-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에 대한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10.1~11.20)

⑤ 사료용 쌀 추가공급('16: 101천톤 → '17: 250), 해외원조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 지속 추진

- (복지용) 관계부처 협의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포장재 변경 등 수급권자의 수요확대 방안 강구
- (해외원조용)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소규모(1천톤 내외) 원조 우선 추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 적극 검토
- (사료용)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 확대

- 특히, 농가소득은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

\* '16년산 쌀 직불금 예산 : (고정) 8,240억원, (변동) 9,777억원

-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여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

- 한편,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 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노력 강화
- 농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예정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